

# 세월호 참사 6주기 온라인·자택서 추모행사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

시민프로젝트 '기억의 편지'

25일 목포·팽목 자전거 순례 현장 대신 다양한 문화추모

"잊지 않습니다. 아직..."  
올해 6주기를 맞은 세월호 추모행사가 '코로나19' 여파에 온라인과 자택에서 이뤄진다. 감염 우려로 취소된 팽목항 현장 추모행사를 대신해 시민 참여 프로젝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은 1일 "코로나 사태로 세월호 참사 6주기 행사는 온라인 위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 중 하나로 시민 참여 프로젝트인 '기억의 편지'를

기획했다.  
기억의 편지는 SNS를 통해 프로젝트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신청자들에게 A3크기의 편지지를 보내준다. 지금까지 350명이 '기억의 편지' 프로젝트에 참가 의사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 편지지 위에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필사하고, 희생자들을 위한 그림을 그리게 된다. 이렇게 완성된 기억의 편지는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광주 시 동구 YMCA 백제홀에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실 옆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분향소도 마련된다.  
상주모임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동구 5·18민주광장에 전시를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여파에 전시장소를 실내로 정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현장 행사는 취소됐지만 목포 선화교 팽목항 일대를 둘러보는 자전거 순

례는 오는 25일 진행된다. 자전거 순례는 목포선화에서 팽목항까지 이동하는 기억 코스와 진도대교에서 팽목항까지 이동하는 동행코스, 진도서초교에서 팽목항까지 향하는 순례코스 등 3갈래이다.  
'세월호잊지않기 목포지역공동실천회'도 축소된 현장행사를 대신해 다양한 문화추모행사를 기획했다. 실천회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월호를 문화예술로 승화시키는 '세월호 예술로 담다'를 추진한다. 미술학교와 영화학교로 구성된 '세월호 예술로 담다' 프로젝트는 세월호가 가진 안전 및 생명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한다.  
먼저 미술학교는 세월호와 관련된 주제로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티셔츠·판화·컵 등을 만들어 기존에 리본으로만 국한됐던 세월호 콘텐츠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실천회의는 이렇게 만들어진 예술품을 지역

문화예술 협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전시할 계획이다.  
영화학교는 세월호를 주제로 제작된 다큐멘터리와 영화를 함께 모여 관람하는 문화행사다. 참가자들은 영화 관람 후 세월호의 가치와 의미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실천회의 관계자는 "세월호 예술로 담다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팽목항과 기억의 숲을 오가는 기획버스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 '추모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18일까지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고교 3학년 온라인 개학(9일)에 대비해 1일 광주 서강고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온라인 시범 수업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 통신비 지원·태블릿 확보...광주·전남교육청 온라인 개학 준비

원격교육 지원단, 콘텐츠 제작 가이드북·교사 온라인 연수도  
광주·전남 교육청이 사상 첫 '온라인 개학'에 따른 혼란과 수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교육 지원단'을 구성하고, 스마트기기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준비에 나섰다.  
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각급 학교 원격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은 교사 등을 상대로 수업 방법 등을 안내하고, 콘텐츠를 제작해 보급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초·중·고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도 진행했다. 지난 30일부터 원격수업 연구 시범학교로 운영된 서강고·대촌중·지산중·송정초 등 4개 학교의 성과를 모든 학교에 전파하기로 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원격수업 가이드 북을 보급하기로 하고, 온라인 개학 초기 컴퓨터나 태블릿 기기 작동이 서툴거나 어려 발생으로 원격수업에 접속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원격교육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컴퓨터와 휴대전화기 모두 없는 학생들에게 스마트 패드를 지원하기로 하고 교육부 대여로 1200대를 확보했으며, 나머지는 보유량에 여유가 있는 학교의 협조를 받아 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인터넷 통신비로 초·중학생 4개월분 1인당 7만 400원, 고등학생은 12개월분 1인당 12만 1200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남교육청도 온라인 개학 일정에 따른 학교 급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원격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자기주도 활동 수업 중 학교 상황에 맞는 방식을 결정해 선택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단방향 콘텐츠 활용 중심 원격수업을 뛰어넘어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권장하기로 하고 최근 구축한 '전남 에듀테크 교육서비스'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보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해 학교 컴퓨터실 내에 원격학습교실을 설치해 온라인 수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내 전체 학생의 3% (5686명)에 달하는 원격교육 소외 학생에 대해서는 통신비 4억원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지원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양동시장 상인들에 면마스크 16만장 제작 주문 광주교육청 '상생 행정'

광주교육청이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면마스크 제작을 대량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1일 학생 건강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양동시장 상인들에게 면 마스크 16만장 제작을 의뢰해 납품받았다고 밝혔다.  
주문량은 모두 16만장이다. 1차로 지난 달 31일 6만장이 우선 납품됐으며 2차분 10만장도 조만간 조달될 예정이다.  
시 교육청은 개학 전까지 비축용 보건마스크 62만장, 보급용 일반마스크 26만장, 면마스크 41만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중 면마스크 16만장이 시장 상인들의 손을 거쳐 조달됐다.  
면 마스크 1장의 단가는 1750원으로, 시장 상인들에게 의뢰한 16만장의 전체 금액은 2억 8000만원에 달한다.  
마스크 만들기에 참여한 한 상인은 "코로나19로 방문하는 손님이 없어 매출이 크게 떨어졌는데, 교육청이 면마스크 제작을 의뢰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시장 상인들이 만든 면마스크가 학생들의 안전을 지킨다고 생각하니 일한 보람도 크다"고 말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로 영세한 시장 상인들이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면마스크 제작을 의뢰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8	달뜨기	12:12
해질	18:55	달집	02:11

화재주의  
차고 건조한 공기로 인해 새벽 쌀쌀한 곳 있었다.

광주	구름많음	5/18	보성	맑음	3/17
목포	구름많음	6/14	순천	구름많음	6/18
여수	구름많음	7/16	영광	구름많음	4/15
나주	구름많음	4/18	진도	구름많음	6/15
완도	맑음	7/18	전주	구름많음	3/17
구례	구름많음	3/19	군산	구름많음	3/14
강진	맑음	5/18	남원	구름많음	1/18
해남	구름많음	5/17	흑산도	구름많음	7/12
장성	구름많음	4/17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남부	안바다	북서~북	1.0~2.0	서~북서	0.5
	면바다(북)	북서~북	2.0~4.0	서~북서	0.5~1.0
	면바다(남)	북서~북	2.0~4.0	서~북서	0.5~1.0
남해 서부	안바다	북동~동	1.0~1.5	북동~동	0.5
	면바다(서)	북동~동	1.0~2.5	북동~동	1.0~2.0
	면바다(동)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 생활지수

보통	감기	보통
보통	뇌졸중	보통
보통	미세먼지	보통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0:29	08:12
	13:56	20:19
여수	09:44	03:16
	21:59	15:38

◇ 주간 날씨

3(금)	4(토)	5(일)	6(월)	7(화)	8(수)	9(목)
☀	☀	☀	☁	☁	☁	☀
5/18	5/17	3/16	4/19	7/21	7/21	7/19

## 광주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 4월까지 통행금지

광주 남구가 추락 방지시설 공사가 진행되는 4월 한 달간 제석산 구름다리의 통행을 금지시켰다.  
1일 남구에 따르면 제석산 구름다리 추락 방지시설 설치 공사가 오는 30일까지 한 달여간 진행된다. 공사 기간이 구 통행은 전면 금지된다.  
남구는 제석산을 찾은 주민들이 구름다리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구름다리 양쪽 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해 산행을 통제하고 있다.  
현재 제석산 구름다리에는 보행자들의 안전기준에 문제가 없는 1.2m 높이의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으나, 지난 2017년과 2018년 예기치 못한 추락사고가 연달아 발생해 난간의 높이를 보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새롭게 설치되는 안전 난간은 알루미늄 재질이 사용되며, 2m 높이로 설치되고 있다. 또 난간과 난간 사이 간격을 좁게 해 사람 머리가 안전 난간 밖으로 빠져 나오지 못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앞서 남구는 제석산 구름다리 교량 입구와 등산로 주변, 도로변에 공사 기간 출입 금지를 안내하는 플래카드를 설치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 광주 북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늘린다

광주시 북구가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나선다.  
북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해 구매 목표액보다 173%의 구매실적을 달성했고, 올해에는 목표액을 증액해 8억 9400만 원으로 정하고 우선구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북구는 구매담당자에게 공공구매의 필요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 등을 안내해 구매율을 높여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hb@

# 신세계안과

## 10인의 안과전문의 분야별 진료

노안 백내장

스마일 라식·라섹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